

匠人精神으로의 의식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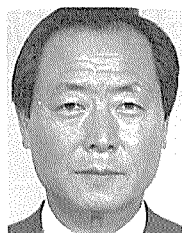
급속히 변화하는 최첨단情報化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의 정보를 한 장소에서 좀더 빨리, 좀더 편리하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일일생활권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모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긍정적인 점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특히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이 메말라져 가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사회의 발달과 함께 직종이 多樣化·分業化됨에 따라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나친 개인주의의 팽배는 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의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자기자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거나 동료와의 협조를 생각하는 일은 드물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식은 자신이 공동체의 한부분이라는 관념을 갖지 못하고 방랑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공동체의식의 결여는 직장인의 높은 이직율로 나타나 철새처럼 떠돌아 다니게 한다. 업무를 깊고 넓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나머지 알고 쪼게 이해하여 그 업무에 있어서는 '最高'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장인정신을 가질 수 없다.

천을 한올 한올 정성들여 짜거나 고려자기를 숨씨있게 빚어 그 찬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듯이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긍정적인 의식은 계승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는 척결하여 의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우물을 파더라



金東熙

동양소프트웨어(주) 대표이사

도 한 우물을 깊이 파라'는 속담이 있듯이 의식은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은 습관화되고 그 습관은 결국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이처럼 의식의 개혁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사회를 만들어, 창조정신으로 현재를 타개하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지니고 도전하여 과감하게 변신을 거듭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싹틀때 장인정신은 좀더 가까이 정보화사회와 밀착되는 것이 아닐까.